메트로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각국선수들의 활 23일 오전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 예선 라운드 경기에서 각국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뉴시스

동력 잃은 조선업 활로 찾아야

경기침체로 수주물량 격감 시총 15조원 날아가
중국·일본은 회복세… 현대重 파업강행 땐 결정타

모건스탠리 최근 보고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시가총액이 올해에만 15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더욱이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 4개 종목의 주가가 연초 이후 평균 35.9% 떨어졌다고 밝혔다.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현대중공업이다. 연초 25만3500원이었던 현대중공업 주가는 전날 14만1000원으로 44.4% 추락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36.2% 전날 종가 2만2250원), 삼성중공업(-33.5% 2만5300원), 현대미포조선(-27.5% 12만5500원)의 순이었다. 연초 이들 4개 종목의 시총 합은 38조2903억원이었지만 23조3255억원으로 감소해 약 14조9650억원이 증발했다.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 감소 문제를 거론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달 초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수주 잔량은 꾸준히 회복된 반면 한국만 유독 뚜렷한 등락 없이 정체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8월만 비교해도 중국의 수주 잔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일본은 17% 늘었지만 한국의 수주 잔량은 큰 변화가 없다. 수주 잔량은 수주량에서 인도량을 뺀 값으로 수주 잔량이 높을수록 향후 매출로 이어지는 일감이 많다는 뜻이다.

모건스탠리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는 매출로 인식되는 인도량은 줄여 수주 잔량을 조절했지만 국내 조선사는 분기마다 꾸준히 매출액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수주가 활발하면 수주 잔량 문제는 해결되지만 국내 조선사의 경우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 약 209억 달러(한화 약 21조8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9%), 일본(-29%), 전 세계(-19%)의 신규 수주 감소율을 크게 웃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상반기에도 국내 조선사의 수주 둔화가 계속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선박가격을 인하해 저가 수주에 나서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이는 조선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모건스탠리의 전망은 수주 잔량에 따른 분석만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상선이나 해양 플랜트의 수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맞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본다.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건스탠리는 국내 조선업체가 저가 수주에 발을 뻗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기술력을 간과한 것"이라며 "상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중국이 10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국내 상위 업체는 8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가 지적한 것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노조가 일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올해 2분기 1조10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업체들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조선업을 위협할 만큼 커졌고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도 조선소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한국 조선산업의 전체 경쟁력을 뒤흔들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새롭게 지명된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회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나눠줬다.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朴 대통령, 유엔 기후정상회의 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외교의 꽃'인 유엔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초청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 등을 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아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신기후체제 협상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도국의 기후 대응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사회 경제적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서의 유엔과 반 사무총장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국제 사회에 직접 설명하고 역내의 평화 연장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문희상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3일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방명록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나온 "今臣戰船 尙有十二(금신전선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한자로 남겼다. /연합뉴스

중앙정부 빚 500조 넘었다

7월말 기준… 세수 진도율 작년보다 3.2% 낮아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그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4년 중앙정부 채무 499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가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세수감소 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많다.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3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채주연기자 boa@metroseoul.co.kr

반기문 총장·김용 총재 만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부는 낯뜨거운 한류바람

기자 수첩
김학철
<연예스포츠부 기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출전한 첫 퍼펙트 아시안게임.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세 번째 아시안게임.

이런 의미있는 업적과 달리 첫단추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안팎으로 쏟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개막식은 일종의 한류 영화제나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개막식에 앞서 아이돌 그룹 엑소가 으르렁 대며 몰쇼를 했다. 이어 4부 성화 봉송을 앞두고는 JYJ가 무대에 올랐고, 피날레는 싸이가 장식했다. 개막식 주요 퍼포먼스에도 한류 스타들이 대거 포진됐다. 스포츠 행사의 '결정적 순간' 곳곳은 연예인들을 위한 레드카펫이 깔린 꼴이었다.

화룡점정은 이영애의 성화 점화였다. 놀랍지도 않은 것이 심의 거론만 안 됐을 뿐 조직위가 제공한 자료의 정황은 모두 그를 지목했다. 한류의 직지점이기도 한 그였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된 개막식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언론은 일제히 "체육과 무관한 영화배우가 성화 점화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스포츠 축제 개막식에 한류 설명회는 변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 자랑할 것이 이들뿐이던가. 지금 인천은 그렇지 않아도 '한류 쇼'로 가득하다. 한류로 꾸려진 개막식은 볼거리만을 제공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45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다. 우리의 역사, 전통 등 찬란한 문화와 스포츠 정신을 뽐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뭐라함이 '진짜' 눈 가린 낯 뜨거운 행사였다.

뉴스&뉴스

야당 몫 국회 도서관장직 포기 검토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무직 중 야당 몫으로 간주되는 국회도서관장 지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백심 당직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실천 가능한 당 혁신안의 하나로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계파 간 자리 나눠먹기 행태를 우리 당부터 비워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中 공산당, 김무성 대표 10월 방중 초청

● 중국 공산당이 법치와 반부패를 주제로 하는 새누리당과의 첫 정책회의를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자고 제안하며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

천펑상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23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 집무실로 김 대표를 예방, "중국 공산당은 대표께 10월 방중을 공식 초청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총리가 대형 재난 컨트롤타워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년 2월 최종 확정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인명 피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2일 정 총리가 수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난 발생 시 사고 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h@

주호영 "공무원노조, 토론회 방해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 반발로 무산된데 대해 "물리적으로 토론을 저지해서는 안되고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임해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만한 점이 있고 연금 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여러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점지가 들어간 점은 경청할만하다"며 "이런 점을 논의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한일기자

태풍에 발묶인 어선들 23일 제16호 태풍 '풍웡'이 제주도 해상으로 다가오자 어선과 선박들이 서귀포항에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송광용 연루 대학 비리 수사

유학원 브로커 역할…대학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 등 조사

검찰이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과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 수사와 관련,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해당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정사퇴 전인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현직 신분인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탄달여 전인 6월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최근 사직한 송 전 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송다혜기자 sdh@metroseoul.co.kr

'대리기사 폭행' 유족 4명 내일 대질조사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경찰에 재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25일 오후 1시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 소환 대상자는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권 전 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와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특정인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유가족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송다혜기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송다혜기자

작년 교통사고 '최다' 교보타워교차로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교차로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3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20개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교보타워교차로에서는 총 61건의 사고가 발생, 9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교차로(49건, 사상자 88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46건, 73명),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45건, 92명), 서울 종로구 신설동교차로(43건, 55명) 순이었다. /조현정기자 jhj@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신청 안해도 정부가 먼저 제안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3.0 발전계획'은 정부가 가능한 혜택을 국민에게 먼저 제안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되고, 비공개 관행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도 재점비된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지자단체·공공기관·기업·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천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송다혜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서 민, 관 합동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4분30초만에 시민 전원대피

제2롯데월드 방재훈련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여부를 앞두고 23일 민관합동 종합방재훈련이 진행됐다.

롯데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해당 건물의 위기대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화재를 가정한 상황에서 실내에 있던 훈련 참가자들이 4분 30초만에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다.

상황 발생후 3분 6초 만에 제2롯데월드에서 1.3㎞ 떨어진 잠실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차가 처음으로 도착해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구급차와 고가사다리차 등이 잇따라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객으로 훈련에 참가한 1,20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0여명이 롯데측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에 참가한 시민 대다수가 20~30대 젊은 층 위주로 이뤄져 노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찬 롯데물산 이사는 이에 대해 "하이마트 등에서 채용해 인근 잠실점 등에서 현장훈련 중인 직원들이 자신들이 근무하게 될 장소에 와서 대피훈련을 체험하고 싶어해 시민으로 참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다혜기자

美 시리아 내 IS 공습 개시

전투기·폭격기 등 총동원… 중동 국가와 공동 작전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IS)를 상대로 22일(현지시간) 공습을 시작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과 동맹국 군대가 첫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며 "전투기와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사령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진 후 뒤 로이드 오스틴 중부사령관이 이렇 안팎 공습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홍해상의 구축함 알레이버크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공습이 시작됐다. IS 군 사령부와 보급시설, 훈련 캠프 등이 목표물이었다. 한 관리는 "공습은 약 90분간 집중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 우방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어느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CNN 방송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가 대거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습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한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격퇴 전략에 따라 실시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내 IS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8일부터 지금까지 이라크 내 IS를 상대로 190차례 공습을 했다. 19일부터 프랑스도 공습에 동참했다. 향후 50여 개국이 국제연합전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내 공습이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수렁에 발을 들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선미기자 seonm@me.metroseoul.co.kr

풍선의 정체는? 기후변화 시위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서 시위대가 대형 풍선을 머리 위로 옮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풍선은 탄소 물질로 오염된 지구를 상징한다. /AFP 연합뉴스

백악관 침입자 차량에 총알 800발

내달 1일 첫 공판

최근 백악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체포된 오마르 곤살레스(42)의 차량에서 총알 800여 발과 손도끼 2개 등이 발견됐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곤살레스의 차량에서 무기류가 대거 나왔다고 밝히며 그를 무기를 소지한 채 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곤살레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혐의 확정 시 그는 최고 10년 형에 처해진다.

텍사스 출신인 곤살레스는 이라크 참전 용사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질주해 대통령 관저 현관문까지 도착했다가 체포됐다.

곤살레스는 당시 바지 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무단 침입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백악관 비밀경호국(USSS)은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USSS는 백악관 인근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곽 검문소에서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잉경호 논란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조선미기자

다이애나비 드레스 얼마?

12월 미국서 4벌 경매

고 다이애나(사진) 영국 왕세자비가 입었던 드레스가 오는 12월 경매에 나온다고 미국 줄리엔 경매소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경매 관계자는 영국 디자이너 캐서린 워커와 잔드라 로즈가 제작한 드레스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워커는 다이애나비가 가장 좋아했던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이번 경매에는 모조 진주와 구슬로 장식된 드레스와 심야색 실크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등 총 4벌이 나온다. 경매가는 각각 6만~8만 달러(약 6251만~8335만 원)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브닝 드레스는 최고 10만 달러(약 1억419만원)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다.

경매는 오는 12월 5~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다. /조선미기자

만화 주인공처럼… K컵 가슴성형

metro HongKong

여대생 "꿈 이뤘다"

중국 여대생이 만화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K컵 가슴 성형을 했다.

만화에 빠져있는 여대생 더우더우(가명)는 만화 속 여주인공 같은 풍만한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를 꿈꿔왔다. 그는 결국 지난해 광저우의 성형외과에서 가슴에 260g짜리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더 큰 가슴을 갖고 싶어 다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속옷 모델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한 성형외과에서 무료로 가슴성형을 받을 수 있는 가슴모델을 신청했다. 가슴모델로 선발되기 위해 매일 남는 시간에 헬스로 체형을 만들고 무용을 배웠다. 그는 노력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조로 꿈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가슴모델로 선발됐다.

더우더우는 260g의 보형물 대신 500g의 보형물을 삽입했다. K컵이 된 그는 어디를 가든 자연스레 주목을 받게 됐다. 그는 "가슴확대수술과 허리지방흡입을 통해 만화 속 주인공과 같은 몸을 갖게 됐다"고 만족했다.

그는 "나에게 변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본능에 따라 꿈을 좇은 것뿐이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많은 만화축제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꿈을 이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세계최초 우주비행견 아시나요?

metro Russia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실시된 한 경매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견공 '벨카'와 '스트렐카'의 우주복이 1만8000 달러(약 1880만 원)에 팔렸다. 이 때문에 옛 소련의 우주선을 탔던 세계 최초 우주 비행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메트로 모스크바가 이들이 등장하는 포스터와 엽서 등을 살펴봤다.

◆ 포스터 창문에 나란히

화가 콘스탄틴 이바노프가 1960년에 그린 포스터 속 창문에 벨카와 스트렐카의 모습이 보인다.

◆ 신년 엽서 '해피 뉴이어'

벨카와 스트렐카가 새해를 축하하며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비운의 탑승견 성냥갑

1957년 최초로 우주 비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비운의 우주 비행견 '라이카'의 모습을 담은 성냥갑이다.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후 몇 시간 만에 스트레스로 숨졌다.

◆ '벨카와 스트렐카의 모험'

어린이용 도서 표지로 유리 갈페린의 일러스트 작품이다. 이 책은 1961년 베스트 셀러가 됐다.

/드미트리 벨야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국민 63% "사르코지 복귀 싫다"

metro France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국민 63%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니콜라 사르코지 전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계복귀를 알렸다. 그가 속한 대중운동연합(UMP) 정당은 현재 니콜라 사르코지를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사르코지 전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1%는 사르코지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절대 반대라 답했으며 22%는 별로 좋지 않다고 답했다.

/엘리앙 사보르 기자·정리=정하린 인턴기자

체계적인 교육제도 갖춘 '게임 인재 사관학교'

스마일게이트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큰 사진). 사내 휴게실에서 한 직원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스마일게이트 ⑯

신입사원 한 달간 합숙교육
연봉 IT업계 최상위 수준
5년 만에 매출 76배 성장

"스마일게이트는 높은 성장성을 자랑하는 게임업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전문가를 꿈꾸는 구직자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김지훈 스마일게이트 인사조직총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2002년 설립 이후 매년 두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매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교육제도도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다는 설명이다. "충분히 대우하고 충분히 성과를 내도록 독려한다"는 기업철학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피트니스 클럽·안마실도 마련

실제로 스마일게이트의 복지제도는 게임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우선 교육·운동·취미·여가 생활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의료비·출산·육아비·경조사비는 물론 생활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야근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회사지원 콜택시로 편안하게 퇴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내 복지시설도 훌륭하다. 피트니스 클럽은 물론 직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실도 마련돼 있다. 특히 '잘 먹어야 일도 잘한다'는 경영진의 생각을 반영해 중식·석식을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연봉도 IT업계 최고 수준이다.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 연봉에 육박하는 성과급도 받을 수 있다. 탁월한 성과를 낸 조직에게는 미국·동남아 등에 해외 워크숍도 보내준다.

'게임 인재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다양한 교육제도와 체계적인 육성시스템도 다른 업체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크로스파이어 동접 600만 기록

무엇보다 스마일게이트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성장성이다. 동시 접속자수 600만 명을 자랑하는 FPS(1인칭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에 이어 MMORPG(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 'DK 온라인'이 잇따라 성공했다.

이 덕분에 2008년 4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3년 376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9억 원에서 2550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북미·유럽·동남아 등에 해외 법인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그룹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며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게임 IP 개발 부문의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국내외 게임 퍼블리싱 부문의 스마일게이트 월드와이드,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관계사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이다.

◆수시·공채로 매년 200명 채용

스마일게이트는에 가유하는 인재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300여명이던 직원이 최근 1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수시채용을 통해 경력직을 뽑고 있는 스마일게이트는 올 하반기 공채를 통해 20~30명의 신입사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모집 직무는 플랫폼·콘텐츠, 글로벌IP, 모바일, 게임개발 등이며 홈페이지(smilegate.com)를 통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좋아하는 열정과 경험 있다면 OK

"게임을 좋아하면서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라면 스마일게이트에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훈(사진) 인사조직총괄 이사는 게임과 직무에 대한 의지와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업계 최고 전문가로 성장시킬 강력한 육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재사관학교'로 불리던데

▶▶심절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우선 신입사원은 한달간 합숙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이후에도 사관학교 수준의 타이트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1차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실무 면접에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 팀장도 참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격노하우가 있다면

▶▶이제 '열정', '사명감'으로 구성된 스마일게이트의 인재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생활·동아리 활동·아르바이트 경험 등에서 인재상과 부합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과 게임공모전·글로벌 게임잼 등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스마일게이트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김치 아카데미 눈길 LG전자는 지난 22일 서울 혜화 수도조리전문학교에서 가전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남자 직원을 대상으로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담그는 법을 교육하는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LG전자 제공

부모 직업까지 쓰라는데…

싫어도 적는 게 유리

본적, 키와 몸무게, 부모님 직업과 직위…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이력서 질문에 구직자라면 누구나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선택 항목이라 기재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게 된다.

서류 합격을 원한다면 선택항목을 쓰기 싫어도 쓰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인사담당자 358명을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들은 선택항목이 기재된 이력서를 그렇지 않은 이력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민망해도 서류 합격을 원한다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74.4%는 "선택항목 기재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택항목을 채우지 않은 이력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성의 문제'였다. 인사담당자의 45.5%는 선택항목이 입력되지 않은 이력서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선택항목을 입력한 이력서와 그렇지 않은 이력서는 검토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선택항목을 입력한 이력서의 검토 시간이 더 걸다는 응답은 59%나 됐다. /한일송기자 unique@

market index <23일>

구분	지수	변동
코스피	2028.91	▼10.26
코스닥	575.56	▼1.79
금리	2.35	변동 없음
환율	1038.50	▼3.50

'따뜻한 가을의류 준비하세요' 2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색상의 스웨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여성스웨터를 6900원에 판매하는 등 베이직아이콘 가을신상 등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행사를 연다. /연합뉴스

단통법,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있나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 통과 관건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정책 필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이해집단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시행고시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고시 6개 등 총 11개 세부 고시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24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출한 이들 고시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들 고시안 중 핵심 사안은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리는 바람에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2년 약정으로 월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정했다고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통위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통신사,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제조사마저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잘 고려해 규제개혁위 심사 결정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양대 이주대 겸임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고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칫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피해가 유통종사자들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통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가계통신비 절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한 설득 내용이 있는 자료를 배포해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단통법의 사전승낙제는 승낙철회 시 페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s4403@metroseoul.co.kr

중소기업 회생 도울 상의, 전문가 모집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와줄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를 2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5명 내외로 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대기업 퇴직임원 등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코치 능력을 갖춘 계층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10월 6일 시작해 매주 3회(월·수·금)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성공·실패 사례분석, 종합 전략수립 시뮬레이션,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 등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맞춘 실습교육이 주로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한상의 기업지원팀(02-6050-3453)으로 하면 된다. /이정훈기자

휘발유값 ℓ당 평균 1800원대로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대에 진입한 23일 송파구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38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5조 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논의

나델라 MS CEO 방한 ·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만나

사티아 나델라(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에 이어 세번째 MS 수장인 나델라 CEO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MS 개발자 콘퍼런스 '테크데이즈 코리아 2014' 참석차 23일 방한했다.

이번 방시는 나델라 CEO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공식적인 첫 [illegible]의 출장이다. [illegible]는 방한 기간에 특히 분쟁 해결과 업무 협력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앞서 MS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MS는 자사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 합병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구했다.

MS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급을 유보한 로열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델라 CEO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부산에 5조원 규모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립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MS가 부산을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델라 CEO는 우리나라 방문을 마친 뒤 MS 최대 시장인 중국과 고국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로 1992년 MS에 입사했다.

/채윤정기자

외국인 렌탈주택 틈새 수익상품 주목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외국인 렌탈주택이 틈새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처럼 과잉공급 논란이 없을 뿐 아니라 상가·오피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을 연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3일간 6200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갔다.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미군기지인 K-6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미군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아파트로, 렌탈주택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몰린 것이다.

주택임대에 전세 개념이 없는 외국에서는 월세를 기본으로 하되 1년 치 이상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깔세'가 활성화돼 있다. 월 임대료가 100만원일 경우 1200만원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렌탈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선호되고 있다.

특히 개인보다는 법인·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사업이 인기다. 이 중 미군의 경우 미군·그 가족, 관련 종사자 등의 수요가 안정될 뿐 아니라 미군주택과에서 주택을 직접 체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편의성도 높다는 평가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외국인 주택렌탈 사업이 투자자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입지·상품 등을 면적 파악한 뒤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규호
사회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
독자센터 02)721-9801

ㄱ

국가대표

[Member of the National Team]

명 ❶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활약하는 스포츠팀 또는 선수들을 일컬음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그들에겐 국가대표로서 같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놀라게 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양궁,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구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을 키우는 현대자동차그룹 }

자살보험금 지급 놓고 금감원-생보사 대결

금감원 "30일까지 지급하라" …생보사 "지급 못해" 소송추진 등 강력 반발

Issue&View
미지급 보험금 2000억 파행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만큼 생보사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당국은 민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며 업계와 팽팽선을 달리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그간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미지급 민원 40여건에 대한 수용 여부도 함께 통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 조치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교보·한화는 물론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ING 가장 많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ING생명이 471건 6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순이었다.

논란이 된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사에서 총 281만7173건으로 집계됐다.

대형보험사가 158만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만9472건, 외국사 64만6802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95만4546건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험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 46만6818건, ING생명 36만7984건, 흥국생명 16만9650건 등 순이었다.

◆생보사 소송 제기로 제재 미뤄질까

한편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미뤄진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의 지연이 늦춰질 전망이다.

또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생보업체들이 줄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제재에 대한 소명기간이 오는 11월 말까지인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당국의 제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직 결정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한석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기획팀장은 "현재 상황에서 ING생명이 제재조치를 따를지 미지수"라면서 "(ING생명이)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으므로 타 업계에 대한 특별감사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며 감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하반기 신규채용 20% 확대

주요 은행들의 올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과 맞물려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시중 은행장들에게 채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의 하반기 채용규모는 모두 1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10명과 비교해 18.68%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250명), 신한은행(200명), 기업은행(200명), 농협은행(14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선 국민은행은 상반기 정규직 65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 정규직 290명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올해 총채용 규모는 355명으로 전년대비 90% 이상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올 하반기 공채 원서접수 결과, 290명 모집에 2만명이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입사 지원시 학력·성별·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해 온 자격증·봉사활동·해외연수 경험 등 외형적인 스펙을 삭제하는 '열린채용'을 실시했다.

원서접수가 끝난 우리은행은 250명 모집에 최대 2만4000명의 구직자가 몰리면서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신화기자 csh@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

안전한 건축 공사대금 관리
전용임대를 통한 공정관리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 우리은행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공사대금관리와 건축 공정관리가 가능한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 제공

농협은행, '통일대박 정기 예·적금'

NH농협은행은 23일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인 'NH통일대박 정기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일시대 준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상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적금은 월 1만원 이상 한도제한이 없다.

예금은 개인 100만원 에서 5억원 이내, 법인은 300만원 이상 30억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개인의 예금과 적금은 우대금리를 합산해 각각 최대 연 2.45%,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 예·적금은 각각 연 1.8%, 2.5%의 최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자발적인 통일관련 활동을 유도하고, 은행 측은 매년 10억원 이내에서 가입고객 세전 이자금액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해 남북농업협력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실향민, 새터민,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 등은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글짓기나 통일단체 후원 등 통일관련 활동에 기여하거나 개최(주관)한 경우 '통일염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NH농협은행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거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기대하며 만든 사회공헌형 상품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해 상품의 이름처럼 통일 대박을 향한 새로운 불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어려울수록 빛나는 가치주 펀드

올들어 20%대 고수익 '대박' 상품 속출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 들어 20% 안팎의 고수익을 기록한 상품이 속출했다.

가치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내는 개별 상품의 펀드매니저를 살펴보는 투자자도 늘었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펀드 수익률 자료의 항목에 매니저란이 지난 18일부터 추가됐다.

수익률 자료의 기존 항목인 개별 펀드의 운용사와 설정액, 순자산 규모, 기간별 수익률 등과 함께 각 상품별 매니저 이름이 명시됐다.

이승원 에프엔가이드 연구원은 "개별 상품을 누가 운용하는지를 보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져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펀드 투자설명서에 이미 게재된 정보이지만 투자자 편의를 고려해 수익률 집계 자료에 주가 항목으로 새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연초 대비 27.04%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낸 '미래에셋솔로몬가치주증권투자신탁G 1(주식)종류C 5'의 매니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번진 스타일운용 팀장이다.

이 팀장은 기업의 내재가치나 자산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투자 방식보다 향후 경쟁력과 같은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운용철학으로 잘 알려져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전효준 포트폴리오매니저가 맡은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A'-e클래스도 올 들어 20.71% 오르며 상위권을 지지했다.

전 매니저는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재무구조와 같은 지표를 중시하는 가치투자 전략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 장기투자 철학의 권오진 메리츠자산운용 전무가 담당하는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e'와 가치투자의 대가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부사장이 맡은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W형 등도 16%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치주펀드라고 해서 과거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실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펀드매니저가 누구인지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장기투자를 추구하는 가치주펀드의 경우에는 더욱 운용사의 브랜드 보다 개별 매니저의 운용철학이 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대만에 모바일 결제 노하우 전수 KB국민카드가 대만에 모바일 결제 신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모바일 결제 한류바람 일으키기에 나섰다. KB국민카드 김덕수(왼쪽) 사장과 대만 대신상업은행 상서리(오른쪽) 리테일뱅킹 부문 집행임원이 22일 KB국민카드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미래에셋, '행복 캠페인' 기부금

미래에셋생명은 지난주 여의도 본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주거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보험에 접속한 고객의 보험료 계산 1건당 1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 가정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는 집으로 캠페인에 기부된다.

김개활 미래에셋생명 영업지원부문장은 "다이렉트보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행복 나눔으로 환원한 좋은 캠페인이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북심가치에 맞게 앞으로 계속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 보험은 암, 정기, 상해 등 10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 최초로 변액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김형석기자 khs@

현대카드, M포인트 50% 결제

자라, H&M 갭 등 10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M포인트로 묶인다.

현대카드는 글로벌 SPA 브랜드 제품 구매 시 M포인트 사용을 제공하는 '50% M포인트 패션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현대카드 M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구매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글로벌 SPA브랜드에는 자라(ZARA)와 에이치앤엠(H&M), 갭(GAP), 바나나리퍼블릭(BANANA REPUBLIC), 에잇세컨즈(8seconds), 마시모두띠(Massimo Dutti), 풀앤베어(PULL&BEAR),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 버쉬카(Bershka), 조프레시(JOE FRESH)가 참여한다. 일부 백화점과 쇼핑몰, 온라인 매장은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사기간 동안 M포인트 사용금액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의류업종 2~5개월 무이자할부(5만 원 이상 결제 시) 혜택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또 현대카드 스타 프렌드십(Star Friendship)과 골드 프렌드십(Gold Friendship) 회원은 추가로 10% 청구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10개의 SPA 브랜드가 참가해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멋과 실속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포인트는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2.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쇼핑과 외식, 주유, 자동차 구매 등 전국 3만4000곳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박지원기자 ahnell201@

금융권, 올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KB사태·해외 부실 대출·보신주의 쟁점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2일 금융감독원, 8일 종합감사(금융위·금감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KB사태를 포함해 ▲은행 해외지점 부실 대출 ▲서금신규제완화 및 가계부채 급증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주요 이슈로 나뉘질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큰 충격을 지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KB사태'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진실 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장에서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의 현지 사무소와 지점이 국감 대상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 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은행권의 담보 위주 중소기업 대출 관행과 고금리 서민 대출에 대한 지적은 야당은 기존 대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행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나쁘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산기자 m.nl@

장애인 주거 개선 '200호' 돌파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RC)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 '500원의 희망선물'이 서울 노원구 다운복지관에서 200호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화재 김연길 부사장, 장애인인식천운동본부 이수성 이사장, 다운복지관 김정열 이사장 및 삼성화재 노원지역단 RC, 다운복지관 원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이 장기보험 신계약 시 1건당 판매 수수료 500원씩을 모아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지난 2005년 6월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와 함께 소통사도 여성 장애인의 주방을 고쳐주기 위해 시작됐다.

9월 현재 이 활동에는 약 1만5000여명의 삼성화재 RC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된 누적 금액은 약 42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을 500원 동전으로 쌓으면 그 높이가 약 1만6800m에 이른다. /김형석기자

애스톤마틴 서울이 23일 서울 마리나에서 한국 공식 진출을 알렸다

'007의 차' 애스톤마틴, 상륙

100여 년의 역사를 갖춘 영국 럭셔리카 브랜드 '애스톤마틴'이 한국에 상륙했다.

애스톤마틴 서울(대표 신봉기)은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마리나에서 애스톤마틴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으로 알렸다. 이미 이달 1일부터 서울 청담동에 매장을 오픈하고 판매에 들어간 애스톤마틴 서울은 이번 론칭 행사를 계기로 영국적 아름다움과 럭셔리, 그리고 스포티한 감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애스톤마틴의 국내 진출은 뷰티 & 소울(Beauty & Soul)이라는 100여 년의 브랜드 가치를 유저들에게 전달하면서 고급 럭셔리 자동차의 눈높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르쉐와 재규어 등 기존 고급 럭셔리 모델 대신 스포츠 쿠페와 컨버터블, 그리고 4도어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오랜 지투펌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듯 하다.

국내에 소개되는 모델은 애스톤마틴이 추구하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한국 내에서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애스톤마틴 서울은 애스톤마틴의 대표적인 모델인 뱅퀴시 컨버터블 모델인 볼란테와 쿠페, 4도어 모델인 라피드S, DB9 컨버터블 모델인 볼란테와 쿠페, V12 밴티지와 V8 밴티지까지 국내에 선보이게 된다.

출시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V12의 고성능 모델이다. 다양한 스포츠 패키지가 함께 출시되기 때문에 마니아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진출을 위해 올해 초 신청한 형식인증 절차도 마친 애스톤마틴 서울은 그동안 국내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여타 업체들과는 달리 무난한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정현민기자 [illegible]

스마트폰 시장 경쟁 뜨겁다

중국·일본 전략폰 유입 정면대결
'외국산 휴대폰의 무덤' 이젠 옛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과 일본 제조사가 전략 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면 대결을 펼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한류도 을 하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의 한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한·중 대결에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10월 중 국내 휴대폰 시장에 등장한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내달 안에 화웨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초기 공급 물량과 가격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판매 시점이나 출고가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10월 중순 안에는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스마트폰 대당 가격은 30만원~5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웨이에서 한국으로 출시할 스마트폰 '아너6'는 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 3GB 램, 3100mAh 배터리 등을 탑재, LTE-A 통신 기능과 VoLTE 등의 기능이 장점이다.

일본의 소니코리아는 22일 '엑스페리아Z3'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엑스페리아Z3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 2014를 통해 공개된 소니의 전략 스마트폰이다. IP68 방진·방수 기능부터 2070만 화소의 카메라, 광각25㎜ G렌즈 탑재, 고음질 HRA 등 소니의 최신 기술을 집약했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전후로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통신사의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덕분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모토로라와 HTC 등 외산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밀려난 데는 휴대폰 판매 장려금 지급과 복잡한 국내 유통구조가 문제였다"며 "공단말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외면당했다. 한때 '한국은 외산 휴대폰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를 거쳐 개통하지 않아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통법 시행으로 해외 휴대폰 제조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수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수능 D-50 집중력 높이세요 조이재팩이 수능을 50여일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illegible] 앞에서 신제품 수험생용 조이바이튼을 선보이고 있다 /기업뉴스

혼수가전 '세대 교체' 바람

신개념 대체가전 열풍

가전업계가 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개념 가전제품을 선보이며 혼수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가전업계에서는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일체형 사운드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에어워셔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체가전을 선보이며 깐깐한 예비 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선보인 '14년형 사운드 바'는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젊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2개의 스피커를 활용해 극장 못지 않은 입체음장을 구현하는 사운드바로 기존 홈씨어터의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을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연결할 수 있고, 본체와 서브 우퍼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필립스전자에서 출시한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클리어터치는 주부들에게 인기다. 다림질은 단시간에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크, 니트 등 세탁소에 맡겨야만 됐던 까다로운 옷들도 집에서 다림질이 가능해 세탁비 절감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다.

실내 공기에 민감한 주부라면 LG전자의 '에어워셔'를 주목해야한다. 이 제품은 물로 공기를 정화해 가습과 공기청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슈퍼 이오나이저로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중 유해 세균과 박테리아를 약 99.9% 제거해준다.

믹서기와 기능이 흡사한 원액기도 예비부부 사이에서 인기다. 휴롬이 최근 선보인 2세대 휴롬은 맷돌을 돌리듯 느리게 짜내는 저속착즙 방식을 적용하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재료의 맛과 색은 최대한 유지한다. 또 새로운 조절 레버를 장착하여 찌꺼기 배출압력을 조절하여 각 재료에 맞는 최상의 착즙이 가능하여 주스 착즙량은 더욱 높이고 찌꺼기의 양은 감소시켰다.

/[illegible]기자

"이민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

지난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주게 이민박람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미국, 캐나다·호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를 만났다.

▶미국 이민 박람회가 성공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민법인대양의 부스를 방문해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었다. 자녀 교육이나 노후, 새로운 사업 기회 등으로 이민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법인대양에서 수속 대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 가장 인기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교육, 복지, 노후, 사업기회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국가이다 보니 많은 인기를 끈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이민 문호는 많이 좁아졌더라도 여전한 인기를 끄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즘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인기라고 하던데.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EB-3 취업이민'으로 말 그대로 숙련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경력, 연령, 학력 등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 신청의 폭이 매우 넓다.

하지만 너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대기기간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조금 더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이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부터 끝까지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법인대양에서는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본사 세미나룸에서 매주 토요일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참석을 희망한다면 홈페이지(www.dymin.com)에서 확인 후 신청을 하거나 전화(02-556-7779)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가전업계, 김치냉장고 시장 격돌

제습기 판매 부진 만회하기 위한 카드
이른 출시와 마케팅으로 시장 선점 노려

가전업계가 올 하반기 승부수로 김치냉장고를 내걸었다. 특히 올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치냉장고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계절가전으로 김장철에 맞춰 9월부터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8월 신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대표 계절가전인 제습기가 올해 마른 장마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했다. 가전업체들은 제습기가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도 200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고를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100만대 안팎으로 재고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전할 카드로 김치냉장고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김치냉장고 보급률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01~2004년 이후 김치냉장고의 수명인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신제품들의 키워드는 정밀한 온도제어기술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 기술이다. 김치냉장고는 온도편차를 0.5도 이내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 안정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를 적용해 정온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2015년형 지펠아삭 M9000을 내놨다. LG전자는 6분마다 냉기를 뿜어내 온도 편차를 줄이는 '쿨링케어' 기능을 채택한 2015년형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냉장고를 지난달 각각 선보였다.

위니아만도 2015년형 딤채의 고메스페이스(사진)에도 저장실의 온도 편차를 1도 이내에서 정교하게 제어하여 최적의 온도와 수분을 찾아 내부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기술이 구현됐다. 동부대우전자도 선반간 온도 편차를 업계 최저인 0.1℃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2015년형 스마트 클라쎄를 출시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마케팅 경쟁도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10월 27일까지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미리 장만하면 할인, 제습기 증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위니아만도는 최신형 딤채 김치냉장고와 위니아 에어워셔를 상품으로 증정하는 딤채 사진 공모전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LG전자도 9월 한 달간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반도건설,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 분양 반도건설은 양산신도시 물금택지지구 15블록에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 827가구(전용면적 59㎡ 258가구, 84㎡ 310가구, 87㎡ 259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을 갖추어서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도건설 제공

알리바바와 잭 마의 닮은 인생

IT도 인문학이다

/박상훈 기자 [illegible]

알리바바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그런데 우연히 도적떼가 보물을 숨겨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의 문을 여는 주문이 "열려라 참깨"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후 알리바바는 동굴로 다시 가서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져와 부자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40인의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죽이기 위해 기름장수로 변장해 그의 집에 찾아온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집에는 가사도우미 카흐라마나가 있었다.

그는 도둑들의 계략을 알고 그들이 숨어 있는 항아리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 모두 죽인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도둑떼의 두목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칼춤을 맛드러지게 추다가 갑자기 두목의 목을 내리친다.

카흐라마나의 용기와 지혜 덕에 목숨을 구한 알리바바는 동굴 속에 남아있는 보물을 모조리 긁어와 더 큰 부자가 됐다.

중국 항저우의 영어 학원에서 월급 20달러(약 2만원)를 받던 강사 잭 마(중국명 마윈). 그는 1995년 설립된 이베이가 97년부터 유명해지고 이후 글로벌 인터넷 쇼핑사이트로 자리잡은 것을 보고 1999년 비슷한 컨셉트의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자신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삼고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부도 위기에 몰린다. 이때 이베이가 인수 제안을 하지만 잭 마는 단칼에 거절하고 이베이의 고향인 미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기업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잭 마는 관광가이드를 하던 시절 만리장성에서 제리 양을 만나 친구가 된 상태였다. 이후 제리 양은 잭 마가

포브스 잡지 커버를 장식한 잭 마 알리바바 회장.

일본의 거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받도록 도와준다.

지난 19일 알리바바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공모 총액 22조6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첫 거래일에 주가가 38%나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41조원에 육박했다. 삼성전자(174조원)를 넘어 구글(419조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지분의 9%를 보유한 잭 마의 자산은 19조원이 됐고 알리바바에 투자해 지분 34%를 얻은 손정의 회장은 78조원을 품게 됐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자산이 12조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슈퍼리치'라 할 수 있다.

잭 마는 알리바바처럼 우연히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동굴을 발견했고 "열려라 참깨"라고 따라서 외치듯 이베이를 모방해 '알리바바'를 오픈했다.

또 시녀 카흐라마나의 도움을 제때 받았던 알리바바처럼 제리 양과 손정의라는 수호천사를 절묘한 시기에 만났다.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름은 잘 짓고 볼 일이다.

세종시의 강남, '2-2생활권' 분양 '주목'

세종시는 단기간 많은 물량이 공급돼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약세를 보여 단분간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한동안 분양 시장도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2생활권은 정부종합청사와 거리가 가깝고 세종시 중심상업지구로 조성되는 2-4생활권, 문화국제교류지구 등과 바로 접해 있어 세종시의 인기 주거지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뿐만 아니라 2-2생활권은 그동안 거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고급 브랜드타운 형성이 기대되는 것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먼저 금성백조가 지난 9월 3일 P4구역(M9, M10블록) '세종 예미지'의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87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총 1만1694명이 접수해 평균경쟁률 30.21대 1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중 M9블록 112.19㎡는 1명 모집에 1순위에서 165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연구팀 정태희 팀장은 "공급 과잉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든 랜드마크는 존재하고 이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세종시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적극 청약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2-2생활권은 P1~3블록의 분양이 9~10월 모두 진행된다.

오는 24일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접수를 받는 롯데건설·신동아건설은 P1구역에 '캐슬&파밀리에' 1944가구, 10월에는 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P2구역에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1694가구,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이 P3구역에 '메이저시티' 317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2생활권은 생활권 주변에 아파트를 배치했고 생활권 가운데에는 근린공원과 상업시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의 학교가 조성돼 생활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동쪽 바로 맞은편에는 백화점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도 있어 세종시 내 알짜 생활권으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탁 기자 [illegible]

"수상한 예비사위 뒷조사 부탁해요"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최근 인도에서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뒷조사'가 성행하면서 사설 탐정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과거와 집안을 통해 혼사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맺어지는 커플이 늘면서 직업과 학력을 속이는 사기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라리카 라히리(53)는 1987년에 사설탐정 업계에 첫발을 디뎠다.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이 뛰어들어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라히리는 1994년 가족의 도움으로 5000달러(약 522만원)를 받아 작은 탐정회사를 차렸다.

그는 "과거 인도에서는 가족과 친척의 소개로 이뤄지는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비 신랑·신부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요즘에는 가짜 프로필을 등록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 놓는 사기꾼이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인도, 온라인 연애 늘면서 부모들 '사기꾼' 검증… 사설 탐정업체 호황

탐정 업체는 예비 신랑·신부의 연애 경험과 소득, 집안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라히리는 델리의 기업가가 딸의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이 미덥지 못하다며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사기꾼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부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기업가의 딸을 유혹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도 가짜였고 지도 빌린 것이었다.

인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탐정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다. 탐정 업체에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자녀 양육권을 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배우자의 뒷조사를 위해 탐정 업체를 찾는 고객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들은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남성 탐정보다는 같은 여성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심리적으로 더욱 편안하게 느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라히리는 20년 전만 해도 여성 탐정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꽤 된다며 이성에게 인기있는 직업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1인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여성 탐정을 비롯해 15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아이폰6플러스 암시장서 10배 거래

첫 주말 1000만대 팔려 신기록

잡스의 고집을 꺾고 화면을 대폭 키운 새로운 아이폰이 대박을 터뜨렸다.

CNN은 애플의 신제품 스마트폰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첫 주말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1000만대를 넘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의 신제품의 판매량이 첫 사흘간 1000만대 이상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5s와 5c가 1년 전 출시됐을 때 첫 주말 판매량은 두 모델을 합해 900만대였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07년 첫 출시부터 8년간 연속으로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사판 첫 주말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이번 판매 기록은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5s와 5c를 냈을 때는 중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했으나 올해는 1·2차 출시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2일 베이징의 암시장에서는 아이폰 6 플러스와 아이폰 6의 거래 시세가 1400달러(약 146만원), 2400달러(약 251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1차 출시국 발매일인 19일에는 중국 암시장에서 아이폰 6 플러스가 3100달러(약 324만원)에 팔린 적도 있다. 이같은 중국 암시장 거래 가격은 미국 이동통신사 2년 약정시 구입 가격의 7~10배에 해당한다.

애플은 오는 26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2차 출시국 22개국에서 아이폰 6와 6 플러스를 시판할 계획이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국명기자 kmlee@

뮤지컬 '라이언킹' 엔터테인먼트 수익 1위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온 킹'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62억 달러(약 6조4600억원)의 수익을 올려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라이언킹은 브로드웨이의 경쟁작인 '오페라의 유령'이 거둔 수익 60억 달러를 추월하면서 1위로 등극했다. /뉴욕타임스

영국 테스코 '분식회계'로 주가 폭락

취임 3주차 새 CEO 입지도 불안

영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 테스코가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며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는 테스코 주가가 22일 런던 증시에서 11%나 폭락해 11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시가총액은 무려 20억 파운드(약 3조4100억원)나 사라졌다.

이번 폭락은 테스코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해 4명의 고위 임원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 벌어졌다.

비용을 과다 계상해 올해 상반기 이윤을 2억5000만 파운드(약 4270억원) 가량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테스코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외상 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상당량의 상품이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도둑맞았다면서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사건이 불거지자 테스코 경영진은 회계법인 딜로이트와 법무법인 프레시필즈에 의뢰해 분식회계의 전모와 여파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알디와 리들 등 최근 급성장하는 할인점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테스코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한지 3주된 데이브 루이스 최고경영자(CEO)의 입지도 불안해질 전망이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이국명기자

유통업계, 겜슈머들 잡기 나섰다

틈새시장 공략, 게임업체와의 제휴 행사 잇따라

국내 유통업계가 게임업체와 제휴를 통해 '게임 하는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제품을 구매하면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거나 게임 제작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고객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먼저 현대약품은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와 엑토즈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장검의 기사' 제휴 이벤트에 나섰다. 제품 뚜껑 속 스페셜 코드를 장검의 기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입력하면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업체는 또 최근 자사의 비타민 음료 브랜드 '프링글'과 위게이밍의 '월드오브탱크' 제휴 이벤트를 여는 등 꾸준히 게임업체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카콜라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의 캐릭터가 음료 패키지에 새겨진 프로모션 제품을 출시하고 '2014 시즌 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을 추첨을 통해 주는 이벤트를 10월 15일까지 벌인다. 캐릭터가 새겨진 행사제품을 구매한 후 QR코드나 제품에 새겨진 프로모션 코드를 이벤트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대떡볶이는 게임업체인 DeNA, 누리조이와 협업을 통해 모바일게임 '국대떡볶이 for kakao'를 런칭했다. 먹는 재미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 가게 운영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국대떡볶이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CJ 게임제당의 프레시안은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 롯데칠성음료의 '립톤 아이스티'는 넥슨의 '서든어택'과 제휴를 맺고 지난 달까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디다스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 넥슨이 서비스하고 EA 서울 스튜디오가 개발한 온라인 축구 게임 'FIFA 온라인 3'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디다스 올 인 아레나 서포티드 바이 FIFA 온라인3' 등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을 벌였다.

유니 브랜드 크록스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아 교육용(권장 연령 만 2세부터 6세까지) '앱인 크록스 리플의 모험'을 업계 최초로 지난 5월 선보였다. 이야기 속에서 미션을 부여 받아 이를 해결하면서 우정과 가족애를 배우고, 게임 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정혜인기자 onnie@metroseoul.co.kr

온라인 마켓은 벌써 '스키 시즌'

'역시즌' 마케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마켓에서는 벌써부터 스키 시즌 개막에 나섰다.

스키 시즌권 판매가 빨라지면서 9월부터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11번가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2012년과 2013년의 관련 매출을 분석한 결과, 9월이 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11월(57%)·10월(42%)·12월(20%) 순이었다.

이런 경향을 바탕으로 온라인 마켓업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G마켓은 'G국내여행' 코너를 통해 국내 인기 스키장 시즌권을 선보인다. 14-15 대명 비발디파크 전일 시즌권(1차)은 대인 36만원, 소인 22만원에 내달 12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11번가는 24일부터 하이원리조트 시즌권 1차 판매에 나선다. 남성권은 36만원이며 여성권은 24만원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스키 풀세트 등 쇼킹딜11시 전용 특가 상품을 구성해 판매했다.

/김수정기자 hu@metroseoul.co.kr

이마트몰, 온라인 장보기몰 강화

성장한계 극복 노력

이마트몰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마트몰은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보정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개월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보정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860억원의 투자비를 들인 보정센터는 연면적 1만4605㎡(4418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규모로 자동 피킹 시스템, 고속 출하 슈트-콜드체인 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과 설비를 갖췄다. 앞으로 양재에서 동탄에 이르는 수도권 남부권역 15개점포에서 담당하던 온라인 배송을 전담하게 된다.

바뇨 측은 오프라인 점포 위주의 사업에서 온라인을 강화해 외형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최우정 상무는 "보정센터를 오픈하게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마트몰 적자부선과 점포 위주 사업의 성장 한계였다"며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인건비,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년 뒤면 이마트몰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식품이다"며 "우리는 장보기 시장을 특화해 모든 상품을 모아 배송받을 수 있는 구조의 이커머스 시장의 마지막 보고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보정센터 운영을 위해 ECMS(Emartmall Center Management System)라는 전용 물류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고객 주문부터 상품 피킹과 배송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협력회사 결제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하나로 연동시켜 주는 최첨단 B2C물류 시스템으로 보정센터의 핵심 경쟁력이다.

한편 이마트몰은 2020년까지 매출 목표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 비중이다.

/김수정기자

롯데리아, '원조 빅불 세트' 쏜다

퀴즈 맞춘 500명

롯데리아가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조 빅불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를 벌인다.

롯데리아 35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원조 빅불 TV CF를 본 후 홈페이지에서 2가지 퀴즈를 푸는 이벤트다.

정답을 맞힌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원조 빅불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2가지 퀴즈는 햄버거 업계 최초로 불고기버거를 출시한 브랜드와 원조 빅불 패티의 원재료를 맞히는 것이다. 당첨자 500명은 10월 13일 발표된다.

/정혜인기자

강강술래, '가을愛 할인 대축제'

구이메뉴 10% 할인, 와인 1+1 이벤트
가정간편식 2세트 사면 1세트 덤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소중한 이들과 외식을 즐기거나 여행 캠핑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을愛 할인 대축제'를 벌인다.

먼저 10월 3일까지 전 매장에서는 기존 멤버십 회원이 구이메뉴(정식류, 해피아워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가입하는 멤버십 회원에게는 포인트 1000점을 무료로 적립해주며 냉면상품권(1매)도 함께 증정한다.

또 와인(키르멘 플럼 멀롯)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와인(키르멘 폴렌 카비네소비뇽) 1병을 무료 증정하며, 칠칠한우떡갈비, 흑임자한돈너비아니, 등등심돈가스, 모짜렐라돈가스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도 함께 벌인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인기 가정간편식도 파격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로 우리네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 및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ml 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ml 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축제를 맞아 우리 선수를 응원하는 고객을 위해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소박스(50g 10봉)는 3만6000원, 대박스(50g 20봉)는 7만원에 최대 42% 할인 판매한다.

/정혜인기자

가을엔 '활동성'을 높여라

움직임 자유로운 여성용품 등산재킷
나들이족 겨냥한 기능성 아이템 눈길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유통업계가 활동성을 높여주는 아이템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들 제품은 깐깐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기능과 품질은 물론 예쁜 디자인까지 갖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컬럼비아는 등산족들을 겨냥해 세련된 디자인과 은은한 색상을 갖춘 '와일드우드 트레일 재킷'을 내놨다. 가을철 날씨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능성 방수 소재를 사용했으며 전체적으로 심실링 처리를 해 방수 능력을 높였다. 전통 아웃도어 재킷보다 긴 실루엣과 캐주얼 의류에서 볼 수 있는 박포켓으로 평소 캐주얼룩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나들이에서 빠놓을 수 없는 게 도시락을 먹는 재미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심하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므로 무엇보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다. 락앤락은 아이스팩스 대신 보온·보냉 효과가 있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미니 런치 쿨러백'을 선보였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에 민트 라임 코랄 그레이 등 트렌디한 컬러로 구성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출시한 '차량용 쿨러백'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사각형태로 만들었다. 두 제품 다 가볍고 미사용 시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성용품 브랜드 위스퍼는 '그날'이 되면 피부 쓸림 걱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들에 주목해 '피부애 슈퍼슬림'을 출시했다.

위스퍼 피부애 슈퍼슬림은 부드러운 탑시트로 보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민감한 날의 피부 쓸림 걱정까지 줄여준다. 또한 삼각형 구조의 흡수 방식으로 피부에 물건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쾌적한 느낌을 덜어냈다. 가장자리와 중앙의 두께가 거의 비슷하게 얇아 빠른 흡수력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드럽게 밀착돼 스키니진을 입어도 불편함이 없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인천AG 장외 신기록 2관왕

인천공항철도, 19일 최다 이용객·20일 주말 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된 지난 19일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아시안게임 장외 신기록이 잇따라 수립됐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이날 전체 이용객(승차객 기준)이 개통 후 하루 최다 이용객을 경신한 22만55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검암역 인근 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청라역 인근 아라뱃길 인천항에서는 아시안게임 부대행사인 '케이팝 인 아시아(K-POP IN ASIA)' 행사가 개최되면서 공항철도 이용객이 급증한 것.

이는 지난 5월 수립된 최다 이용객 20만8289명을 무려 1만7248명이나 초과한 수치다.

또 개막식 다음날인 20일에도 아시안게임 부대행사인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개막돼 공항철도 전체 이용객은 19만3353명으로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주말 이용객을 기록했다.

공항철도는 노선 주변에 주경기장 등 경기장이 많아 이에 따른 부대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돼 공항철도가 아시안게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수요 증대로 연결시키고자 아시안게임 정보와 노선 주변 명소를 소개하는 아시안게임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검암역에서는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국화축제와 케이팝 인 아시아 행사장까지도 연계버스가 마련돼 있어 아시안게임 동안 다양한 장외 신기록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철도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경기장과 부대행사로 가는 다양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메마른 가을 생기 있는 남성 피부를

물 많이 마시고 제철과일 섭취 필수
수분 크림으로 보습·영양 공급해야

가을철에는 남성 피부도 목마르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감소해 푸석해지기 쉽다.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랩 시리즈 관계자는 "메마른 가을철 남성 피부는 보습과 안티에이징이 중요하다"며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한 그루밍 팁을 공개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몸 속 수분까지 보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섭취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에 수분 공급은 물론 미세 주름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철 채소와 과일도 챙겨 먹는 게 좋다. 가을 제철 채소인 당근은 비타민A가 풍부해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비타민C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특히 가을 제철 과일인 사과는 비타민C와 헤모글로빈 성분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부여한다.

적당한 운동은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가을 자외선은 여름 못지 않게 강하기 때문에 자전거·조깅·등산 등 야외운동을 할 때는 외출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장시간 활동 시에는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면 차단 효과가 올라간다.

가을철 잦은 샤워는 피부의 각질층을 파괴시켜 수분 손실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므로 샤워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물 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시간은 가급적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면도와 세안 후 관리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세안 후 스킨과 로션만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 크림을 덧발라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좋다고 뷰티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지원기자

The-K호텔서울, '글로벌 성장' 천명

컨벤션센터 개관 1주년 운영 계획·비전 제시

지난 8월 특1급 호텔로 승격한 The-K호텔서울(사장 강병직)이 글로벌 호텔로의 성장을 천명했다.

호텔은 23일 컨벤션센터 오픈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산업을 이끌 컨벤션센터 운영 계획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The-K호텔서울로 브랜드 명칭을 교체하고 지난해 9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하는 등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해왔다. 앞으로 글로벌 호텔로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매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MICE산업을 이끌 컨벤션센터에서는 2015년까지 380건의 행사와 19만4000명의 이용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텔은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및 프로그램 유지·전개 ▲타깃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긴밀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문화 인프라 구축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전개할 방침이다.

/유지홍기자 hosu@

/필립스 제공

"엄마와 아기를 위한 혁신"

필립스 아벤트 30주년 기념 간담회

육아용품 브랜드 '필립스 아벤트'가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브랜드 탄생 30주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필립스 아벤트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중인 모유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퍼스트 보틀워머'를 비롯해 아기들이 혼자서도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설계된 '프리미엄 스파우트 컵'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 젖병의 표준이 된 첫 제품을 선보인 이후 30년간 변함없이 엄마와 아기가 보다 자연스럽게 모유 혹은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사회복지회에 총 400개의 젖병 제품을 전달,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보다 앞서 필립스 아벤트는 30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비카인드와 함께 소외된 아기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은 응원 댓글로 물품을 후원하는 '사랑의 댓글'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1984년 영국에서 시작된 필립스 아벤트는 세계 최초 임상적으로 검증된 배앓이를 줄여주는 젖병 이 외에 전기 스팀 소독기, 유축기 등을 선보이며 아기와 엄마를 위한 의미 있는 혁신을 거듭해오고 있다.

/박지원기자

metrobook

새로 나온 책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 가게의 비밀

김종소/갈보

2번의 창업 실패를 딛고 4000원짜리 국수로 재기 번가이오국수 월매출 2000만원을 올리는 2평짜리 초미니 마동복 가게. 서촌골목에서 갑자튀김 하나로 성공한 청년 장사꾼 등 책에는 업종도, 창업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목 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괴짜 엘리트 최고들의 말하는 법을 훔치다

김무귀/청림출판

보기드문 경력의 괴짜 엘리트들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어떤 업무 선략으로 최강의 자리에 올랐는지 소개하고, 직종의 특성에 따른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사내 권력자와 유능한 후배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조종술 등 최고들의 말하는 법을 따라잡기 위한 비결을 속속들이 밝힌다.

장미의 주목

애거사 크리스티/포레

인간 심리의 미스터리를 통찰한 심층적 심리소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두 남녀가 함께 한 삶의 끝에서 비극을 맞이하고, 퇴지인 주인공이 그 비극 속에 감춰졌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특유의 간결하고 신랄한 문체로 그렸다.

엄마는 아이의 불안을 모른다

프랜스 J. 고찬/위즈덤하우스

시작이 두려운 아이들과 마음만 앞서는 엄마들을 위한 공감 육아법을 담았다. 아이의 다양한 불안 문제의 원인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법 안심시스템, 긴장 이완 호흡, 음식을 늘이 등 효과적인 전략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권력이 묻거든 모략으로 답하라

차거청/하퍼포

중국의 사언이자 번역가로 활동 중인 스반산 교수가 '권모서' 원문을 현대 중국어로 옮기고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적 일화나 제갈량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모략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권모서의 내용을 더 알기 쉽고 생생하게 풀이했다.

/하지원기자 ...

인간·세상을 예리한 눈으로 '보다'

5년 만에 펴내는 김영하의 신작 산문집
탄탄한 필력·유려머스한 통찰력 돋보여

발표하는 작품마다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당대 가장 젊은 작가라는 신뢰를 주는 김영하의 신작 산문집이다.

오랜 소설쓰기와 지속적인 책의 세류를 통해 단련된 관찰력으로 5년 만에 펴내는 이번 산문집에서 저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예리하고도 유머러스한 통찰을 보여준다.

예술과 인간, 거시적·미시적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스물 여섯개의 글을 개성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묶은 이 책에서 독자들은 인간 내면과 사회 구조 안팎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김영하의 문학적 시선과 지성적인 필치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사라져가는 시대,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다는 것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워준다.

1부에서는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글을 만나게 된다. 특히 '시간도둑'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절대적 조건으로서의 '시간' 역시 사회적 불평등 현상으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간파해간다.

보다-김영하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김영하/문학동네

2부와 3부에서는 소설과 영화를 지렛대 삼아 복잡한 인간의 내면과 불투명한 삶을 비추는 그의 시선을 만날 수 있다. 4부에서는 좀 더 미세하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들여다 본다.

/김수현기자 ka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바다며 나를 내려준다

바다와 산, 바람가 마을의 고요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해파랑길에 선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자신과 타인들의 모습, 현실과 상상 속의 온갖 사물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걸으면 길 위에 쌓아놓은 돌멩들과 시간 진심 덕분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진다. 내 존재의 낡지는 않지만 해파랑길 위해 서면 오래된 짐가를 내려두고 새로운 것들 가져갈 수 있다. -'동행한 해파랑길'(이엔원/예담) 中

/황재용기자 hsoul38@

'지식 축제' 파주 북소리

저자·독자 소통하는 자리

지식 축제 '2014 파주 북소리'가 오는 10월 3~12일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행사는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인 파주출판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지식축제다. 올해는 저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 성격을 강화했다.

특히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나눔스 로젝트-트... 글 북 레인은 책과 인문학을 매개로 문화와 경제생활을 융합한 야간 플리마켓으로 독서그림 우산 만들기 대화-인문학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이 외에도 독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독서모임 한마당, 글짓기 한마당에 이어 문학열차, 책방거리 퍼레이드 등이 마련됐다.

또한 출판도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식난장은 올해 단장을 끝낸 공안사길 책방거리를 발판으로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저자 ...청감연회와 ...각 출판사 ...정제성을드 ...러내는 공연과 ...전시 북콘서트 ...도서컨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된다.

출판계의 대표 장서가 7명을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북 컬렉션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7인 7색 내가 사랑한 책들: 출판인 장서가 특별전'도 주목해 볼 만 하다.

/김수현기자

꿈으로 끝난 '금융강국 신기루'

화제의 책

금융강국 신기루 김학렬/한인사

결코 성공신화가 될 수 없었던 금융산업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에 맞춰 은행들은 대출금 증대와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을 벌였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야 한다는 믿음으로 규제 완화에 매달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강국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저자는 입체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들이 국내 은행들에게는 취약한 자금조달과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구조만 가져왔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특히 책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금융강국 신기루'만을 좇은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행복을 노래하는 소녀들

매일같이 새로운 신인 걸그룹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섹시 콘셉트를 지향하지만 지난달 데뷔한 4인조 레드벨벳은 달랐다.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멤버도, 아슬아슬하게 짧은 치마를 입은 멤버도 없었다. 슬기·아이린·웬디·조이 네 명의 멤버는 각기 다른 머리 색깔로 시선을 한 번 사로잡고, 사랑과 이별이 아닌 '행복'을 노래하며 귀를 사로잡았다.

◆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

아이돌 사관학교로 꼽히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레드벨벳은 지난 8월 1일 KBS2 '뮤직뱅크'에서 데뷔곡 '행복(Happiness)'으로 처음 대중 앞에 섰다.

SM은 1세대 아이돌 H.O.T와 S.E.S를 시작으로 수많은 아이돌 스타를 배출한 곳. 혹독한 연습생 기간을 거쳐야만 데뷔할 수 있다. 무려 7년이란 긴 시간동안 연습생 시절을 거친 슬기는 "데뷔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데뷔의 기쁨도 크겠지만 수많은 신인 걸그룹 틈바구니에서 S.E.S·소녀시대·에프엑스 등 언니들 그룹 만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분명 클 터.

"무대에 서기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데뷔하고 난 뒤론 행복하기만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케줄도 재밌어요. 사실 데뷔하던 날 무대에서 잘 울 알았는데 팬들이 응원을 와 주셔서 재밌게 즐길 수 있었어요." (아이린)

"하루하루 내 삶터에 집중하고 노래랑 춤을 연습하다보면 힘 닿이 훌쩍 가 있고 그렇게 매일을 보내니 2년이 흘러가 있었고 데뷔를 하게 됐죠. 가장 기쁜 건 저희 넷이 함께 할 수 있단 일이죠. 연습생 시절에도 저희 넷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았거든요." (웬디)

◆ 행복한 나날들

레드벨벳의 맏언니 아이린은 24살이고 막내 조이는 19살이다. 그 사이에 21살 동갑내기 웬디와 슬기가 있다. 연습생 기간에도 네 사람은 자매같이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슬기 언니는 내면이 정말 강인해요. 전 기분이 안 좋으면 가끔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슬기 언니는 그렇지 않아요. 연습할 때 수업시간에도 늘 열심이라 멋진 선배라 생각했어요. 노래나 춤에 있어서 실력도 좋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알아요. 하지만 친언니처럼 대해줘서 더 좋았어요." (조이)

막내 조이가 슬기를 칭찬하자 맏언니 아이린 역시 칭찬 릴레이에 뛰어들었다.

"조이가 레드벨벳에선 막내지만 집에선 의젓한 장녀예요. 여동생이 둘이나 있대요. 그래서인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친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귀여운 동생 같기도 하고 가끔씩 제 고민을 들어줄 땐 언니 같아요." (아이린)

파란색 머리의 웬디는 머리 색깔만큼이나 시원한 웃음을 지으며 "각자 다른 색깔의 머리 염색 아이디는 회사에서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덕분에 저희들 이름을 빨리 외우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알록달록한 미래를 그리며

데뷔곡 '행복'은 강렬한 신스 사운드와 아프리카 느낌이 풍기는 비트가 어우러진 어반 유로팝 장르의 곡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다. 가요계엔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다. 레드벨벳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

"이제 갓 데뷔했는데 저희 팬들이 있단 사실에 놀랐어요. 처음 음악방송 녹화에 갔을 땐 저희 팬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린)

"요즘 기타 연습에 푹 빠졌어요. 레드벨벳 정규 3집 쯤에 제 자작곡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슬기)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닿는다면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보고 싶어요. '먹방(먹는방송)' 만큼은 자신 있거든요(웃음)." (웬디)

"데뷔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학교에 갔다가 스케줄 갔다가 바쁜데 행복하기만 해요." (조이)

/김지민기자 taeuk.m@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역전 노리는 '비밀의 문' 관전 포인트

소재 흥미…검증된 제작진…명품배우 대거 포진

사극과 사극의 대결이다. SBS '비밀의 문'(의궤살인사건)이 지난 22일 첫 방송되면서 월화드라마가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다. 1라운드(22일) 결과는 현상 유지였다. MBC '야경꾼일지'가 시청률 10.4%(TNmS·전국 기준)로 1위를 지켰다. '비밀의 문'(7.9%)은 전작 '유혹' 마지막 회(10.1%)보다 낮은 수치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동시간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비밀의 문'은 첫 방송 후 소재·연출·연기 삼박자를 모두 갖춘 작품이란 평가를 받으며 역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퓨전 사극 '야경꾼일지'와 팽팽한 월화극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작품은 조선 왕조 비극사 중 하나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소재로 궁중미스터리까지 더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는 수 차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됐다. 그럼에도 비극·부자간 갈등이라는 관심을 끄는 내용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형식 감독의 연출과 윤선주 작가의 필력이 인물의 감정과 내용을 밀도 있게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선주 작가는 '불멸의 이순신' '한성별곡' '대왕세종'으로 사극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형식 감독은 미스터리장르를 '싸인' '유령'으로 바니아들을 확보하고 있다. '비밀의 문' 속 궁중 미스터리가 기대 받는 이유다.

SBS 월화극 '비밀의 문' 에서의 한석규와 이제훈

배우들의 연기력은 빈틈없다. 영조 역의 한석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면모를 품기 어린 눈빛으로 표현한다. 이제훈은 제대 후 첫 작품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자유분방한 이선을 연기했다. 배우 박은빈은 지미 속까지 현지적인 인물인 이선(이제훈)의 아내 혜경궁 홍씨 역을 카리스마 있게 소화하며 연기 변신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천재 추리소설 작가이자 의궤살인사건 미스터리를 해결할 가상 인물 서지담 역의 김유정은 발랄함으로 드라마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최원영, 김창완, 이원종, 전국환, 김명국, 권해효, 엄효섭, 장현성 등 명품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왜곡 논란도 없다. 그러나 '비밀의 문'은 '왜 아비 영조는 아들을 죽여야 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세자 이선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 과정을 담는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사도세자는 무수한 이견이 뒤따르는 인물"이라며 "어 내의 기록인 한중록엔 울익한 병에 걸린 광인, 사관 기록인 영조 실록엔 15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해 28세까지 정사를 무리 없이 끌고 간 왕세로 기록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의 문'은 실록에 무게를 두고 이선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려낸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승환 자선공연 연다

플리마켓·깜짝 이벤트도 진행

가수 이승환(사진)이 다음달 11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내 수변무대에서 자선콘서트 '차카게 살자 2014'를 개최한다.

지난 2001년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은 '차카게 살자' 공연은 이승환을 포함한 공연 스태프들이 무보수 혹은 공연에 필요한 비용만 받고 참여하는 자선 공연이다. 공연 수익금과 현이 모은 성금 전액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

이번 공연의 드레스 코드(행사 복장 규정)는 '삼람라'로 특별한 디자인이나 색상을 맞추는 것이 아닌 관객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쁜 옷을 입으면 된다. 또 본 공연에 앞서 다양한 관객 참여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승환은 여러 NGO 단체의 협조 하에 자신의 애장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른 깜짝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승환은 개인 공연 외에도 지난달 '2014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국내 뮤지션 중 유일한 헤드라이너로 참석했다. 지난 5월 열린 '서울 재즈페스티벌'에서도 헤드라이너를 맡는 등 '라이브의 황제'라는 수식어에 걸 맞는 왕성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민 기자 [illegible]

아이콘 데뷔 전 한중일 팬미팅

'믹스앤매치' 사전투표도 진행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새 보이그룹 아이콘(iKON)을 선발하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앤매치'가 한중일 글로벌 투표를 개최한다.

팬미팅은 다음달 5일 일본 오사카 도지마 리버 포럼을 시작으로 11일 중국 베이징 졸리 시어터, 17일 서울 티큐브시티 더 큐브파크 등에서 세 차례 열린다.

질의응답 시간 등 멤버들과 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9명의 멤버(B.I, 바비, 김진환, 송윤형, 구준회, 김동혁, 정진형, 정찬우, 양홍석)가 처음으로 함께 꾸미는 합동무대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이번 합동무대에서는 기다려' '저스트 어나더 보이' 등 기존 윈 B팀 여섯 멤버가 불렀던 곡들을 9명의 버전으로 재편곡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번 팬미팅에서는 '믹스앤매치' 시청자 투표 중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아이콘의 멤버로 이미 확정된 B.I, 바비, 김진환을 제외한 6명의 연습생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전 투표는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믹스앤매치'는 그룹 위너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윈'에서 안타깝게 패배했던 윈 B팀의 6명과 새로운 연습생 3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믹스앤매치'에서는 심사위원 점수 30%와 시청자 투표 70%를 반영해 아이콘의 멤버를 선정한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김장훈 2년 만에 가요계 복귀

내달 신곡 발표 이어 전국투어

가수 김장훈(사진)이 약 2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소속사 측은 "현재 김장훈은 10월 셋째 주 신곡 발매를 목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곡은 티저부터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김장훈이 모든 작업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장훈은 이번 신곡을 위해 50곡을 뽑아 20곡은 녹음했으며 그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해 발표한 후 내년 3월까지 차례로 새 노래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신곡 발표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전국 20개 도시 투어를 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를 시작으로 해외 공연도 재개할 계획이다.

김장훈은 지난 2012년 10월 미국 앨범 발매 후 지난해 초 대만,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해외 단독 공연을 해온 바 있다.

김장훈은 "이번 신곡을 파격인가 조심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아 가장 나다운 발라드로 정했다. 편식은 약간 파격적으로 포크 R&B어트랙 세 기지로 편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좋은 트랙이 발표 될 것"이라며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노래로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골목길 정취 담은 따뜻한 동화

film review

■슬로우 비디오

여장부(차태현)는 세상을 남들보다 느리게 바라본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동체시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남다른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다. 유일한 친구였던 수미마저 떠나버리자 여장부는 세상과 벽을 쌓은 채 유년 시절을 보낸다. 여장부에게 세상은 좁은 단칸방이 전부이고 TV 드라마만이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다.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더 늦기 전에 밖에 좀 나가봐야겠다." '슬로우 비디오'(감독 김영탁)는 주인공 여장부 역을 맡은 배우 차태현의 나직한 내레이션으로 막을 연다. 무심한 듯 그러나 친근한 목소리는 영화가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영화는 주인공 여장부가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면서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평범함 속에서 길어 올리는 특별한 감동

진짜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한 감성으로 그린다.

동체시력이라는 독특한 소재, 그리고 CCTV 관제센터라는 이색적인 공간 등 특이한 설정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영화의 지향점은 김영탁 감독과 차태현이 함께 했던 전작 '헬로우 고스트'처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감동을 길어 올리는데 있다.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 변화를 겪는다는 스토리 라인, 그 속에 소소한 웃음과 슬픔을 한데 버무려낸 점도 전작과 비슷하다. '헬로우 고스트'처럼 지극히 착한 영화다.

연출적인 부분은 전작보다 더 섬세해졌다. CCTV 관제센터의 커다란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인물들을 '빽지판' 미장센, 대학로 거리를 연극 무대로 삼아 노래를 부르는 수미(남상미)의 모습, 여장부의 단칸방을 마음의 지도로 가득 채운 신지권 동화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신들이 눈에 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영화가 담아낸 공간들이다. 서울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영화는 그 흔한 고층빌딩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를 우수한 골목길의 풍경들로 채운다. "다들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산다. 내가 보듯이 가끔은 느리게 흐르면 좋을텐데"라는 여장부의 말처럼 영화는 골목길의 정취를 담아 작은 위안을 선사한다.

감시의 수단인 CCTV를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주변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부족한 점 등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슬로우 비디오'가 전하는 한편의 동화 같은 따뜻함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12세 이상 관람가. 다음달 2일 개봉.

김상경·손현주, 스릴러로 맞대결

'살인의뢰' '악의 연대기' 촬영 종료

연기파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영화 '살인의뢰'(감독 손용호)와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가 각각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에 들어갔다.

'살인의뢰'는 살인마에게 동생을 잃고 피해자가 된 강력계 형사와 아내를 잃고 사라진 평범한 한 남자가 3년 뒤 쫓기고 쫓기는 관계로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치밀한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김상경·김성균·박성웅 등이 출연한다.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친 뒤 김상경은 "항상 끝날 때는 기분이 시원섭섭하다. 오늘 진짜 끝났는지 느낌이 안 올 정도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균은 "벅찬 기분이다. 처음 희생자 가족을 맡았는데 다른 작품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얻었다"고 말했다.

'악의 연대기'는 지난 19일 촬영을 마무리했다. 강력계 형사가 진급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납치를 당하면서 휘말리게 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다. 손현주·마동석·최다니엘·박서준 등이 출연한다.

극중 주인공 최반장을 연기한 손현주는 "긴장감 있는 시나리오, 제작진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행복한 현장이었다. 관객들과 어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촬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마동석은 "남성미 물씬 풍기는 웰메이드 스릴러의 탄생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병호기자

빅토리아, 새로운 '엽기적인 그녀'

차태현과 호흡… 한·중합작 영화 내년 5월 개봉

2001년 개봉한 흥행작 '엽기적인 그녀'가 14년 만에 속편 '엽기적인 두 번째 그녀'(이하 '엽기적인 그녀2')로 돌아온다.

23일 제작사 신씨네는 "'엽기적인 그녀2'가 차태현(왼쪽 사진)과 에프엑스 빅토리아(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9월 말 크랭크인한다"고 밝혔다.

'엽기적인 그녀2'는 전작에 이어 엽기적인 신혼 이야기를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다. 떠나간 엽기적인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견우(차태현)가 운명적으로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에 성공한 뒤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는다.

제작사 신씨네는 글로벌 프로젝트 1호로 '엽기적인 그녀2'를 기획했다. 최근 장리작품 … 동원하나 로약 4억5000만 위안(한화 약 750억원)의 극장 매출을 낸 투자제작사 북경마천륜문화전매유한공사도 제작에 함께 한다.

연출은 … 등을 연출한 조근식 감독이 맡았다. '엽기적인 그녀2'는 9월 말 크랭크인해 내년 5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마담 뺑덕' 정우성 딸 청이는 누구?

신예 박소영 100대 1 오디션 뚫고 캐스팅

신예 배우 박소영(사진)이 영화 '마담 뺑덕'(감독 임필성)에서 정우성의 딸로 관객들과의 첫 만남을 준비 중이다.

'마담 뺑덕'은 '심청전'을 뒤집은 파격적인 설정으로 두 남녀의 지독한 사랑과 집착을 그려낸 작품이다. 박소영은 두 주인공 학규(정우성)와 덕이(이솜)의 사이에서 위험한 삼각 관계를 완성시키는 학규의 딸 청이 역을 맡았다.

청이는 열 살의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 그 죽음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증오를 품는 소녀다. 학규에 대한 복수글 위해 세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덕이를 의지하지만 학규와 덕이 사이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세정에게 집착하게 된다.

고전 '심청전' 속 효녀 심청과 달리 '마담 뺑덕'의 청이는 집착에 눈이 멀어 둘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위험한 일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소녀다. 박소영은 오디션에서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청이 역으로 선발돼 복잡하고 입체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영화 '마담 뺑덕'은 다음달 2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박태환 자유형 400m 아쉬운 동메달

박태환(25·인천시청)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대회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그러나 3연패는 아쉽게도 이루지 못했다.

23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박태환은 3분48초33의 기록으로 중국의 쑨양(3분43초23),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3분44초48)에 이어 동메달을 자지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박태환은 3분53초80으로 쑨양(3분51초17)에 이어 3조 2위, 전체 3위를 차지하며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첫 3관왕에 오른 하기노는 3분52초24로 2조 1위, 전체 2위를 차지해 결승에 합류했다.

결승은 박태환, 쑨양, 하기노의 치열한 3파전으로 펼쳐졌다. 예선 성적에 따라 박태환이 3번, 쑨양이 4번, 하기노가 5번 레인에서 경기에 나섰다. 초반은 하기노가 레이스를 이끌었다. 첫 50m에 이어 100m 구간을 돌 때까지 1위를 지켰다. 박태환은 쑨양의 뒤를 쫓으며 3위로 레이스를 펼쳤다.

이후 쑨양이 150m 구간에서 1위로 나서자 박태환도 속도를 올렸다. 250m 구간을 돌 때 하기노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내 하기노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선두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쑨양보다 5초10이 뒤진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다.

경기가 끝난 뒤 박태환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짐이 많이 부지는 게 사실이다"라며 "많이 응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남은 경기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도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06년 도하 대회와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3연패 달성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3회 연속 메달 수확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박태환은 지난 21일과 22일에 열린 자유형 200m와 계영 800m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메달은 총 17개(금6, 은3, 동8)가 됐다.

한편 박태환은 오는 25일 자유형 100m에서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24일 열리는 단체전 계영 400m에서는 예선에는 참가하지 않고 결승에만 출전할 예정이다.

/정청휴기자 sa·sn n@metroseoul.co.kr

23일 인천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박태환이 1위로 들어온 중국 쑨양의 손을 잡고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펜싱 대표팀 /연합뉴스

펜싱 男女 단체전 금 행진

男 3연패 신기록, 女 3전4기 끝 중국 꺾어

한국 펜싱이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23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이라진(24·인천중구청), 김지연(26·익산시청), 윤지수(21·동의대), 황선아(25·양구군청)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중국을 45-4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중국에게 끌려갔다. 그러나 윤지수와 김지연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마지막 9라운드에서는 중국의 에이스 선천(24)에 8연속 득점을 올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지연이 차분하게 유효타 4개를 마지막으로 찔어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2002년 부산 대회부터 2010년 광저우 대회까지 중국과 결승에서 만나 번번이 패배했다. 네 번째 도전 만에 설욕에 성공했다.

이어 열린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했다. 정진선(30·화성시청), 박경두(30·해남군청), 박상영(19·한국체대), 권영준(27·익산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일본을 25-2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1라운드부터 정진선이 야마다 마사루(20)를 5-1로 제압하며 승세를 잡았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미노베 가즈야스(27)과 맞서 고전했으나 종료 22초 전 2점 차이의 유효타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2006년 도하와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정성호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40	21	20
2	한국	18	18	21
3	일본	11	22	22
4	카자흐스탄	4	4	12
5	북한	3	4	7

<23일 현재>

황영식 승마 마장마술 2관왕

김승연 한화 회장 삼남 김동선 은메달

한국 승마의 간판 황영식(24·세마대승마장·마명 퀴르스 (쿤베르크))이 마장마술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영식은 23일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개인전 결선에서 76.575%로, 21일 본선 점수 76.711%와 합산한 점수 153.286%를 얻어 150.699%인 김동선(25·갤러리아승마단·파이널리)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영식은 20일 열린 단체전에서 김동선과 한 팀을 이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황영식은 2002년 부산 대회와 2006년 도하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최준상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두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승마는 1998년 방콕 대회부터 5회 연속 아시안게임 마장마술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독식했다.

김동선은 결선에서 참가 선수 중 가장 높은 77.225%를 얻었지만 본선에서의 점수차를 따라잡지 못했다. 김동선은 본선에서 73.474%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김동선의 아버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단체전에 이어 이날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했다.

마장마술은 60m×20m 넓이의 평탄한 마장에서 규정된 코스를 따라 말을 다루면서 연기를 펼치는 경기다. 참가국별로 두 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개인전 결선에서는 선수가 직접 준비해온 음악에 맞춰 프리스타일 연기로 기량을 겨룬다.

/유순호기자 suns@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황영식이 태극기를 들고 우승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범 AG 사상 유도 첫 2관왕

남자 유도 대표팀 카자흐스탄 꺾고 金 사냥

한국 유도 남자 대표팀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재범은 2관왕 신기록을 세웠다.

2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만나 4-1로 승리했다.

올해 대회부터 첫 도입된 유도 단체전은 한 팀이 먼저 3승을 따내면 승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으며 2회전인 8강에서는 이란을 5-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몽골과의 4강전에서도 5-0으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66kg급의 최광현(하이원)이 아즈마트 무카노프에게 아쉽게 패했다. 그러나 73kg급의 방귀만(남양주시청),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 90kg급 이규원(한국마사회), 김성민(경찰체육단)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김재범은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까지 우승해 이번 대회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역대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종목 사상 첫 2관왕 기록이다.

한편 한국 유도 여자 대표팀은 숙적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4-1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정성호기자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